

한국 성인의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탐색: 대인관계 신뢰의 매개효과

박종효[†]

건국대학교 교직과

용서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상처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건강을 향상시켜주며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적응적인 대처전략이다. 본 연구는 용서와 대인관계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5~64세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통해 용서, 건강, 대인관계 신뢰,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용서 수준은 성별이나, 학력, 소득과 관련이 없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용서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남자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성인여성은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용서, 대인관계 신뢰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들 변수는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대인관계 신뢰를 통해 완전하게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용서, 주관적 안녕감, 대인관계 신뢰, 매개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종효, (143-701)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Tel: 02-450-0425, E-mail: jonghyop@konkuk.ac.kr

최근 들어 일련의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이 심화되면서, 성인들이 겪는 삶의 고통 역시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항상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종종 우리들은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상처를 받는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부당한 대우는 일회적이기도 하지만 반복적이기도 하며, 경미하기도 하지만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할 만큼 심각하다.

용서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상처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을 없애고 오히려 가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는 패러독스적인 심리과정이다(Enright, 2001; 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 2000; Worthington, 2005). Vailant (2002)는 성인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를 통해 용서는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용서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피해를 건강하게 극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에, 용서는 성인기 이후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개인이 겪고 있는 분열의 상태를 통합의 상태로 변화시켜서 삶의 질이나 안녕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한다(Emmons, 2000).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잘할까? 용서와 인구학적 배경 변인과 관련이 있을까? McCullough와 그의 동료(1998)는 연령, 성별, 종교, 문화, 직업 등이 용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Enright와 Zell (1989)는 연령이 용서와 관련 있다

고 주장하는 데, 이는 용서 이해가 인지적 추론 발달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경험적으로도 Girard와 Mullet (1997)도 용서하는 경향성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갈수록 증가함을 발견하였으며 Walker와 Gorsuch(2002)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용서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용서와 성별 간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Worthington, Sandage, & Berry, 2000). Enright와 Zell(1989)에 의하면 용서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Hanson(1996)은 남자들이 더 용서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Finkel, Rusbult, Kumashiro와 Hannon (2002)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용서를 더 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Mullet, Houdbine, Laumonier와 Girard (1998)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용서수준이 남성들의 용서수준보다 높았다. 또한 이들 연구자에 의하면, 적어도 중등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중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용서를 잘함을 확인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신체 및 정신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바는 용서가 개인의 우울이나 불안, 분노 감정을 없애 주고 삶에 대한 희망이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2011; 김광수, 2002, 2004; 박양리, 현명호, 2012; 박종호, 2003, 2006a; 오영희, 2004, 2007; 정성진, 서경현, 2011; 하늘, 배성만, 현명호, 2011; Baskin & Enright, 2004; Bono,

McCullough, & Root, 2008; Enright, 2001, 2012; Karremans, Lange, & Ouwerkerk, 2003; McCullough, 2000; Tse & Yip, 2009; Worthington, 2005).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판단하는 인지적 요인과 긍정 또는 부정 정서와 같은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다(Diener, 1984; Diener, Scollon, & Lucas, 2003).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삶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구재선, 서은국, 2011).

Lawler와 그의 동료는 성인과 노인 집단(2006)을 대상으로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용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주관적 안녕감도 높았다. 메타분석을 통해, Toussaint와 Webb(2005)은 용서하지 못함은 다양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 우울, 불안, 분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반면에 용서함은 부정적 정서를 줄여줄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으로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용서가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러한 관련성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용서 심리학자들은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McCullough와 그의 동료들(2001)은 복수심과 반추적 사고(rumination), 억압, 용서,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복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상처에 대해 더 많

이 반추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추를 더 많이 하는 피해자일수록 가해자를 회피하거나 보복하려는 동기가 높았다. 또한 복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부정적인 정서도 많이 느꼈다.

이론적 차원에서, 용서와 정신건강,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설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Worthington, Berry, & Parrott, 2001). 이들이 구성한 가설에 의하면, 용서하지 못함은 복수나 분노, 거부 등의 감정을 촉발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용서가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나 대인관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one와 그의 동료들(2008)은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용서를 더 잘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꼈고 부정적 정서는 더 적게 느꼈으며 신체적 증상도 더 적었다. 이러한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더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낄 때,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려고 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지지가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용서가 주관적 안녕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상처나 갈등으로 인해 손상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김기범, 임효진,

2006; 김현주, 안현의, 2011; 라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서정선, 신희천, 2007; 양영숙, 김봉환, 2009; 이윤희, 서수균, 2012; Fincham, 2000; Rusbult, Hannon, Stocker, & Finkel, 2005). 긍정적 대인관계는 성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나 자원이다.

용서와 대인관계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다(이윤희, 서수균, 2012; Finkel, Rusbult, Kumashiro, & Hannon, 2002; McCullough et al., 1998; Rempel, Ross, & Holmes, 2001; Wieselquist, Rusbult, Agnew, & Foster, 1999). 신뢰는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2005). 심리적 상태로써 신뢰는 앞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우호적인 행동을 할 것이며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나 신념, 믿음으로 정의된다(Kramer, 1999). 반면에 불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배신하거나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Lewicki, McAllister, & Bies, 1998).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나 상처를 받았을 때 불신을 느끼게 된다. 상대방을 불신하는 경우 분노와 슬픔, 불쾌감, 의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로 피해를 받았을 때조차 상대방에 대해 신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석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다(Holmes & Rempel, 1989; Rempel et al., 2001). 특히 피해자가 느끼는 가해자에 대한 신뢰는 가

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고 보상하려고 하며 용서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Fincham, Paleari, & Regalia, 2002). 이와 같은 가해자에 대한 신뢰는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로 확장될지 여부는 확인될 필요가 있다(이윤희, 서수균, 2012; Finkel et al., 2002; Wieselquist, 2009). Karremans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2005)는 용서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들은 일련의 실험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용서가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인지, 정서와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부정적 정서의 감소와 긍정적 정서의 증가와 같은 개인 내적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더불어, 용서를 통한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질은 가해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화된 타인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개인적 특성(예. 공감)에 환원하지 않고 대인관계의 특성(친밀성, 신뢰)까지 확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가 주관적 안녕감을 제고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라 성인의 용서 수준과 특성을 살펴보고 용서, 대인관계 신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성인의 용서 수준과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성인의 용서 수준은 성별, 연령,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인관계 신뢰, 건강,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셋째, 용서와 대인관계 신뢰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신뢰가 매개할 것인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와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는 2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20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4.24세($SD=11.33$ 세)였다. 이들 중 남자는 110명이고 여자는 90명이며, 중졸 이하는 44명, 고졸은 77명, 대졸은 98명이었다. 평균 가구소득은 299.11만원($SD=174.37$ 만원)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정 소득의 인구학적 변인과 용서, 주관적 안녕감, 대인관계 신뢰, 건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대학원생 2인이 연구대상을 면대면 면접방식을 통해 조사하였고 용서척도는 연구 참여자가 직접 읽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만일 연

구 참여자가 용서척도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고연령, 저학력 집단)에는 면접방식으로 참여자의 응답을 얻었다. 연구 참여자의 솔직하고 신뢰로운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조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활용방법, 비밀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대인관계 신뢰, 건강 변수는 유럽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이하 ESS) 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ESS는 일반 성인의 태도나 신념, 행동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고안된 사회조사이다(Jowell & The Central Co-ordination Team, 2003, 2005, 2007). ESS 조사의 장점은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을 활용하여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기보고식 건강 구인은 1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문항이 경험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함을 확인한 바가 있다(Ferraro & Farmer, 1999; Idler & Benyamini, 1997).

ESS 조사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2년 주기로 총 30여개 OECD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SS 조사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해당 자료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목적으로 한국 성인 표집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한 것이다.

용서. 우리나라 성인의 용서 수준과 특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박종호(2006b)가 번역하고 표준화한 용서척도 한국어판(Enright Forgiveness Inventory-Korean, EFI-K; Enright & Rique, 2004)에서 EFI 간편형에 해당되는 문항만을 추려서 EFI-K 간편형을 구성하고 이를 본 연구에 사

용하였다. EFI는 용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지, 정서와 행동경향성의 하위영역별로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비교적 많은 수의 문항에 답해야 하는 연구 참여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Enright와 그의 동료들은 하위영역별로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줄여서 EFI 간편형을 만들었다. EFI 간편형(30문항)을 통해 얻은 심리측정학적 정보는 EFI(60문항)를 통해 얻은 심리측정학적 정보와 상이하지 않았다(Enright 연구팀 내부자료).

EFI-K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EFI-K 간편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심각하고 부당하게 심리적 혹은 신체적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정서, 인지, 행동경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기보고 심리검사이다. 참여자는 각 문장을 읽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6)’까지 6점 리커트 척도로 답한다. EFI-K 간편형 총점은 30점부터 180점까지이며 하위척도는 10점부터 60점까지 분포한다. EFI-K 간편형에도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가짜 용서척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짜용서 문항 점수의 총점이 20점이 넘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EFI-K 간편형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용서 전체($\alpha=.96$), 용서정서($\alpha=.93$), 용서행동($\alpha=.83$), 용서사고($\alpha=.96$)에서 모두 양호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ESS 조사에서 주관적 안녕감 변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와 ‘전반적으로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불행)하다(1)’부터 ‘매우 만족(매우

행복)하다(10)’까지 총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두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문항 수는 적지만 2문항이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의 강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1). 또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양호했으며 자기보고 건강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r=.30, p<.001$)이 있었다.

대인관계 신뢰. ESS 조사에서 대인관계 신뢰 변수는 ‘귀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과 ‘귀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ESS 척도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나 맥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2005).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불신상태(이용하려고 한다, 이기적이다)에서 신뢰상태(정당하게 대우해 준다, 이타적이다)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10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1’은 강한 불신을 의미하며 ‘10’은 강한 신뢰를 의미한다. 대인관계 신뢰 척도는 두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신뢰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대인관계 신뢰의 신뢰도 계수는 .52로 다소 낮

지만 척도의 문항 수가 2개임을 고려하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대인관계 신뢰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친목도모를 위해 친구, 친척이나 직장동료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마음을 터놓고 개인적으로 의논한 사람이 있는지 등 대인관계 질에 관한 문항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신뢰 척도와 이들 문항들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r_s > .15, p_s < .05$)를 확인하였다.

건강. ESS 조사에서 건강 변수는 ‘귀하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라는 1문항으로 물었고 이에 대해 ‘매우 나쁘다(1)’부터 ‘매우 좋다(5)’까지의 총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강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함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결 과

한국 성인의 용서 수준과 특성

EFI-K 간편형을 통해 평가한 한국 성인의 용서 총점은 105.92점($SD=32.12$)이었다. 각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서는 34.98점($SD=11.56$), 행동은 33.89점($SD=11.35$), 사고는 37.06점($SD=11.44$)이었다. EFI-K 간편형의 점수 분포(30점부터 180점)와 6점 리커트 척도의 구분을 반영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국 성인은 용서 수준이 ‘약간 용서하는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다.

EFI-K 문항 중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은 약간 상처 받았다(47.0%)고 보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웬만큼(22.0%), 많이(14.0%), 아주 많이(12.0%) 상처 받았다는 순서로 성인들은 응답하였다.

상처 받은 정도와 용서 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용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F(4,195)=6.03, p < .001$, 그림 1 참조). Bonferroni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간’ 상처 받은 사람의 용서점수와 ‘많이’ 또는 ‘아주 많이’ 상처 받은 사람의 용서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p_s = .003, .001$). 상처를 많이 받거나 아주 많이 받았다고 보고한 사람의 용서 점수는 약간 상처받은 사람의 용서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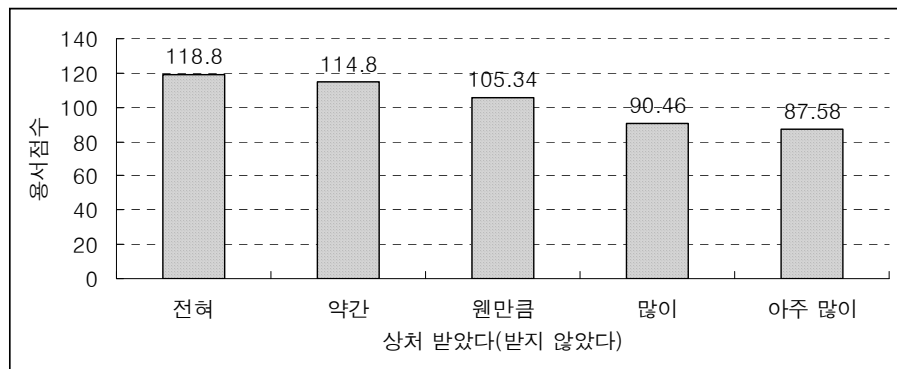


그림 1. 상처받은 정도와 용서 점수 간의 관련성

EFI-K의 가장 마지막에는 응답자에게 가해자를 어느 정도 용서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1문항 용서 척도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전혀 용서하지 않았다(1)’부터 ‘완전히 용서했다(6)’의 6점 리커트 척도로 답한다. 1문항 용서 척도에 대한 반응과 상처받은 정도 간의 관련성도 유의하였다. 아주 많이 상처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45.8%는 전혀 용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약간 상처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43.6%는 웬만큼 용서했다고 응답하였다.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용서하기가 어려우며, 상처를 적게 받을수록 용서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EFI-K 간편형 문항 중에서 상처 준 사람은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 친척이 17.0%, 동성친구 16.0%, 고용주 15.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배우자(10.0%), 이성친구(9.5%), 자녀(3.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이웃, 거래처 사람, 직장 상사나 동료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고용주와 직장 상사, 직장 동료를 모두 고려하면 직장 내 인간관계가 중요한 용서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처 준 사람 역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인남성은 고용주(20.0%)를 가장 빈번하게 보고하였고 거래처(6.4%), 직장동료(6.4%), 직장상사(2.7%) 등,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성인여성은 친척(28.9%)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웃(7.8%) 역시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요컨대, 남자 성인은 직장 내 인간관계를, 여자 성인은 친척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는지를 조사한 결과, 최소 1일 전부터 최장 20년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2년 정도($M=738.66$ 일, $SD=1399.22$ 일)전에 일어났다고 응답하였다. 사건이 얼마나 오래 전에 발생했는지와 용서 수준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건이 오래 전에 일어날수록 용서 총점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r=-.13$, $p=.078$). 특히 사건이 오래 전에 일어날수록, 용서 정서에 관한 하위척도 점수가 낮았다($r=-.16$, $p=.024$).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용서가 되거나 용서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상식적 믿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 성인의 용서 수준 차이 및 주요 변인과의 관련성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용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령 집단별, 성별, 가정의 소득수준, 교육수준별로 용서 수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관

표 1. 변인 상관

	1	2	3	4	5
1. 용서	1.00				
2. 연령	-0.02	1.00			
3. 건강	-0.02	-0.16*	1.00		
4. 대인실패	0.09	-0.07	0.21**	1.00	
5. 주관적 안녕감	0.16*	0.05	0.31***	0.39***	1.00

* $p < .05$, ** $p < .01$, *** $p < .001$

적 안녕감, 대인관계 신뢰와 건강 수준에 있어서도 유의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서와 주요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용서수준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0.16, p<.05$). 주관적 안녕감은 건강, 대인관계 신뢰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r_s \geq 0.31, p_s < .001$).

용서와 대인관계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용서와 대인관계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종의 통제변수로서 연령,

성별, 임금, 건강이 주관적 안녕감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 변수가 주관적 안녕감의 15%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에서 자신이 보고한 건강 수준이 가장 강력한 설명변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용서를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한 결과, 용서는 앞의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유의하게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단계에서 대인관계 신뢰를 위계분석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주관적 안녕감의 설명량은 31%까지 증가되었다.

용서는 대인관계 신뢰가 추가되면서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줄어들었다($\beta=0.18, p<.05 \rightarrow \beta=0.14, p<.05$). 이는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대인관계 신뢰를 통해 매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용서와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연령	0.06	0.79	0.10	1.27	0.06	0.81
성별(1=여자)	0.30 [†]	1.77	0.04	0.55	0.08	1.08
소득	0.15 [*]	2.01	0.16 [*]	2.18	0.17 [*]	2.49
건강	0.33 ^{***}	4.86	0.34 ^{***}	4.48	0.28 ^{***}	3.94
용서			0.18 [*]	2.47	0.14 [*]	1.99
신뢰					0.38 ^{***}	5.45
F	$F(4,159)=6.81^{***}$		$F(5,152)=6.40^{***}$		$F(6,148)=11.28^{***}$	
R^2	$R^2=0.15$		$R^2=0.17$		$R^2=0.3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신뢰 매개(A) 모형과 용서 매개(B) 모형의 적합도 비교

구분	매개모형	χ^2	AGFI	NFI	RMSEA
모형A	용서→신뢰→주관적 안녕감	$\chi^2=15.82$ $df=12, p=.199$.952	.978	.040
모형B	신뢰→용서→주관적 안녕감	$\chi^2=46.33$ $df=12, p=.000$.867	.935	.120

대인관계 신뢰의 매개효과

대인관계 신뢰가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A는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대인관계 신뢰가 매개하는 경우이고 모형B는 신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용서가 매개하는 경우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모형A가 모형B보다 적합도 지수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관계 신뢰를 통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모형A가 최선의 모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안 모형A-1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그림2. 참

조). 대안모형 A-1은 용서가 신뢰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용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는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A-1 역시 모형A 처럼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형으로 판정되었다. 두 모형이 모두 우수하지만 모형A와 모형 A-1은 내재적(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χ^2 값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모형A와 모형A-1의 자유도 차이는 1이며 1 자유도를 버리면서 줄인 χ^2 값은 1.58로서 역치 값인 3.58보다 적다. 따라서 모형A-1보다는 모형A가 더 간명하면서 적합도도 충분히 우수하기 때문에 최선의 모형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모형A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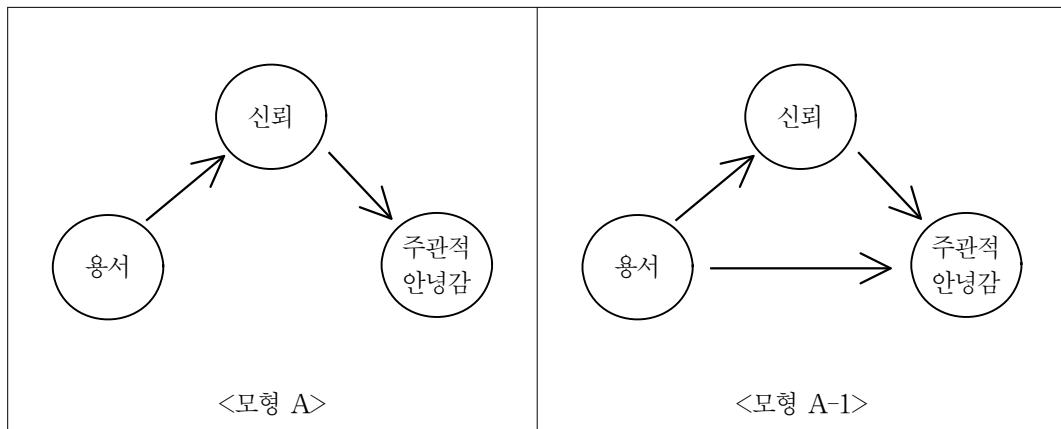


그림 2. 대인관계 신뢰의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모형

표 4. 신뢰 완전매개(A) 모형과 신뢰 부분매개(A-1) 모형의 적합도 비교

구분	χ^2	AGFI	NFI	RMSEA
모형A (완전매개)	$\chi^2=15.82,$ $df=12, p=.199$.952	.978	.040
모형A-1 (부분매개)	$\chi^2=14.24,$ $df=11, p=.220$.953	.980	.038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신뢰가 완전 매개할 뿐이며 용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최선의 모형으로 선정된 신뢰 완전매개(A) 모형에서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용서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신뢰가 높아지며, 대인관계 신뢰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도 유의하게 높아진다. 최종모형을 통해 얻은 주관적 안녕감의 설명량은 29%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성인의 용서수준과 특성을 살펴보고 용서와 대인관계 신뢰,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25세부터 64세까지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용서 연구는 초중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김광수, 김경집, 2007; 오영희, 2004, 2007; 이연

수, 송민경, 김청송, 2011; 장선숙, 김향숙, 홍상환, 2005; 정성진, 서경현, 2011) 일부 성인 대상 연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용서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처치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박양리, 현명호, 2012; 박효정, 홍창희, 2010).

현재까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용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용서 특성을 보이는지, 이들의 용서수준이 연령, 성별,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오영희, 2011; 이경순,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용서 심리 수준과 특성을 살펴보고 용서 심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성인 남자는 주로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성인 여자는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처 받은 기간과 용서 수준 간에는 부적 상관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표 5.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신뢰의 매개효과

	β	CR
구조모형		
용서 → 신뢰	.177*	1.97
신뢰 → 주관적 안녕감	.538***	3.52
측정모형		
신뢰1 → 신뢰	.773	
신뢰2 → 신뢰	.450***	3.49
용서정서 → 용서	.873	
용서행동 → 용서	.924***	18.01
용서사고 → 용서	.887***	17.07
주관적 안녕감1 → 주관적 안녕감	.919	
주관적 안녕감2 → 주관적 안녕감	.841***	7.84

* $p < .05$, *** $p < .001$

지나면 저절로 용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믿음을 반증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한국 성인의 용서 수준은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175편의 용서 연구를 메타 분석한 Fehr 등(2010)의 연구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오영희(2011)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용서가 대인관계 신뢰와 함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 신뢰를 매개로 용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김지영, 권석만, 2009; 정성진, 서경현, 2011; Brown, 2003; Freedman & Enright, 1996; Karremans, Van Lange, Ouwerkerk, & Kluwer, 2003). 유사하게 Bono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2008)에서도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가해자와의 친밀도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 내적 변화로만 이해되었던 용서가 대인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대인관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용서 효과가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지각과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용서 교육이나 용서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일 것이다(Karremans, & Van Lange, 2004).

기존의 용서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변인은 가해자와의 친밀도나 가해자에 대한 공감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에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라는 새로운 매개 변수를 확인하였다. 대인관

계 신뢰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같이 특정 상처나 갈등과 관련된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대인관계까지 확장된 개념이기에 일반화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이윤희, 서수균, 2012).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됨으로써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Karremans, Van Lange, & Holland, 2005).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고, 이러한 동기는 다른 사람을 일부러 피하거나 보복하려는 동기와 병존하기가 어렵다.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2)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이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기초해서 보면, 가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해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가해사건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Ryan & Deci, 2000).

본 연구에서 발견한 대인관계 신뢰의 매개효과는 용서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한 성과일 수 있다. 용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주며, 상처받기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사회적 지지를 다시 얻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Wieselquist, 2009). 용서를 통한 지지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의 회복은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Simpson, 2007).

신뢰의 핵심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토대로, 사람들은 과거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당함을 받아들여 준다(Rousseau, Sitkin, Burt, & Camerer, 1998). 또한 사람들은 개선된 인간관계를 통해 개인이 얻는 유익이나 성과가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처보다 크다고 믿을 때 신뢰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Weber, Malhotra, & Murnighan, 2005). 이러한 신뢰 이론에 기초해서 볼 때, 용서는 가해자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기대를 회복시켜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이 있으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적은 규모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심리적 구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록 전국 25세부터 64세까지 성인 집단을 효율적으로 표집하였고 면대면 면접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지필식 설문조사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응답을 얻었다고 평가되지만 조사방법 상에 개선될 여지는 많다. 용서척도의 경우 조사자를 인식해서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기대되는 방식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심리적 구인을 신뢰롭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이미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조사도구가 있는 바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대인관계 신뢰 역시 각 문항에 대한 대칭적인 의미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보다 정교한 연구모형과 측정도구를 활용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용서가 대인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되는지에 관한 시간적 인과성을 밝히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처치유를 목적으로 형성된 처치 집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용서가 행복이나 만족감 같은 긍정적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가해자를 포함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통해 가능함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2011).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용서가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691-707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김광수 (2002).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 165-191.
- 김광수 (2004). 경험과학적 용서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심리연구*, 18(4), 33-49.
- 김광수, 김경집 (2007).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용서수준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8(4), 87-109
-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분석.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9-33
- 김지영, 권석만 (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239-261.
- 김현주, 안현의 (2011).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57-174.
-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용서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용서 정도와 분노,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집단상담과 집중형 집단상담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47-366.
- 리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21-34.
- 박양리, 현명호 (2012). 용서치료 프로그램이 성인아이의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2), 275-297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301-321.
- 박종효 (2006a). 용서심리이론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관연구. 인간발달연구, 13, 117-134.
- 박종효 (2006b).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 265-282.
- 박효정, 홍창희 (2010). 글쓰기 용서치료가 대인외상경험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83-107.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 양영숙, 김봉환 (2009).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683-699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 이경순 (2008). 용서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237-252.
- 이연수, 송민경, 김청송 (2011). 청소년의 용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173-195.
- 이윤희, 서수균 (2012). 한국판 가족용서 척도 개발 및 가족용서와 청소년 또래관계 사이에서 또래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69-95.
- 장선숙, 김향숙, 홍상황 (2005). 초등학생용 교우관계 용서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99-220.
- 정성진, 서경현 (2011). 대학생의 특성용서, 상태용서, 용서 결정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2), 147-169.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2005).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20.
-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한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속의 신뢰와 불신의 기반으로서 마음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17.
- 하늘, 배성만, 현명호 (2011). 성피해자의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25-737.
- Baskin, T. W., & Enright, R. D. (2004). Intervention studies on forgiven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 79-90.
- Bono, G., McCullough, M. E., & Root, L. M.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82-195.
- Brown, R. P. (200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 in the tendency to forgive: Construct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59-771
- Deci, E., & Ryan, R. (Eds.),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03, 542-575.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3).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d in Cell Aging and Cerontology*, 13, 187-219.
- Doney, P. M., Cannon, J. P., & Mullen, M. R. (1998).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the development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601-602.
- Emmons, R. A. (2000). Personality and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56-178). New York: Guilford Press.
- Enright, R. D.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Washington, DC: APA LifeTool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2012). *The forgiving life : A pathway to overcoming resentment and creating a legacy of lov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Rique, J. (2004). *The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Manual*. Mind Garden.
- Enright, R. D., Freedman, S. R., & Rique, J. (199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R. Enright & J. North (Eds.), *Exploring forgiveness* (pp. 62-129).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Enright, R. D., & Zell, R. L. (1989). Problems encountered when we forgive one another.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 52-60.
- Fehr, R., Gelfand, M. J., & Nag, M. (2010). The road to forgiveness: A meta-analytic synthesis of its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correlates. *Psychological Bulletin*, 136(5), 894-914.
- Ferraro, K. F., & Farmer, M. M. (1999). Utility of health data from social surveys: Is there a gold standard for measuring morbid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303-315.
- Fincham, F. D. (2000). The kiss of the porcupines: from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forgiving. *Personal Relationships*, 7, 1-23.
- Fincham, F. D., Paleari, G., & Regalia, C. (2002). Forgiveness in marriage: The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attributions and empathy. *Personal Relationships*, 9, 27-37.
- Finkel, F. J., Rusbult, C. E., Kumashiro, M., & Hannon, P. A. (2002). Dealing with betrayal in close relationships: Does commitment promote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956-974.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3-992.
- Gambetta, D. (1988). Can we trust?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pp. 213-237). Cambridge, Massachusetts: Basic Blackwell.
- Holmes, J. G., & Rempel, J. K. (1989).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In C. Hendrick (Ed.), *close relationships* (pp. 187-220). Newbury Park, CA: Sage.
- Idler, E. L., & Benyamini, Y. (1997).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A review of twenty-seven community studies. *Journal of Health and*

- Social Behavior*, 38, 21-37.
- Karremans, J. C., Van Lange, P. A., & Ouwerkerk, J. W. (2003). When forgiving enhance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11-1026.
- Karremans, J. C., Lange, P., & Holland, R. W. (2005). Forgiveness and its associations with prosocial thinking, feeling, and doing beyond the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1, 1315-1326.
- Karremans, J. C., & Van Lange, P. A. M. (2004). Back to caring after being hurt: The role of forgive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207-227.
- Kramer, R. M. (1999). Trust and distrust in organizations: Emerging perspectives, enduring ques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569-598.
- Lawler-Row, K. A. & Piferi, R. L. (2006). The forgiving personality: Describing a life well liv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009-1020.
- Lewicki, R. J., McAllister, D. J., & Bies, R. J. (1998).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s and re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438-458.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43-55.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iller, A. J., Worthington, E. L., Jr., & McDaniel, M. A. (2008). Gender and forgiveness: A meta-analy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 843-876.
- Rempel, J. K., Ross, M., & Holmes, J. G. (2001). Trust and communicated attribution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7-64.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393-404.
- Rusbult, C. E., Hannon, P. A., Stocker, S. L., & Finkel, E. J. (2005). Forgiveness and relational repair.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185-206). New York: Routledge.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impson, A. (2007).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trust. In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A handbook of*

- basic principles* (2nd ed., pp. 587-607). New York: Guilford.
- Toussaint, L., & Webb, J. R. (2005).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nections between forgivenes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349-362). New York, NY: Routledge.
- Tse, W., & Yip, T. H. (2009). Relationship among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other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 for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 365-368
- Vaillant, C. E. (2002). *Aging well*.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Weber, J. M., Malhotra, D., & Murnighan, J. K. (2005). Normal acts of irrational trust: Motivated attributions and the trust development proces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6*, 75-101.
- Wieselquist, J. (2009). Interpersonal forgiveness, trust, and investment model of commi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6*, 531-548.
- Wieselquist, J., Rusbult, C. E., Foster, C. A., & Agnew, C. R. (1999). Commitment, prorelationship behavior, and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942-966.
- Worthington, E. L., Jr.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 Worthington, E. L., Jr., Berry, J. W., & Parrott, L., III (2001). Unforgiveness, forgiveness, religion, and health. In T. G. Plante & A. C. Sherman (Eds.), *Faith and health: Psychological perspective* (pp. 107-138). New York: Guilford Press.
- 원고접수일: 2012년 5월 3일
게재결정일: 2012년 6월 18일

Exploration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dults: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Jong-Hyo Park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Teacher Training

Forgiveness is a coping strategy to improve psychological health as well as to enh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positively resolving a variety of hurts and conflicts in everyday life. The current study is aimed to explore the impact of forgiveness and interpersonal trus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To pursue this goal, Korean adults between the ages of 25-64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They were interviewed face-to-face to obtain information on forgiveness, interpers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forgiveness levels among Korean adults are not associated with gender, educational level, or family income. The longer the period of the past hurt, the lower the forgiveness level. Male adults nominated employers/employees/coworkers as offenders, whereas female adults nominated relatives or neighbors. Forgivenes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subjective well-being. This subjective well-being is significantly explained by health, interpersonal trust, and forgiv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is completely mediated by an interpersonal trust. A psychological education on forgiveness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for adults in need of help.

Keywords: forgiveness, subjective well-being, interpersonal trust, mediation effect